

양식

입사 수기 작성 서식(안)

성명:	선우태용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전화번호:	044-861-0366	이메일:	chairpooh@klri.re.kr
응모주제:	장애인채용	채용기간:	2020.01.01~

제목 : 손발이 나쁘다면 머리가 고생하면 된다

~ 이하 자유서술 ~

(A4용지 5매 이내, 글자크기 15pt)

(편집용지 여백 좌·우 25mm, 위·아래 15mm, 머리말·꼬리말 10mm)

“저들에게 나는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분명 1층에 있는 가게인데, 계단 몇 개 때문에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할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었다. 장애가 없었다면, 나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았겠지만 휠체어에 앉아 바라본 세상은 늘 멀리 있는, 그리고 넘지 못할 담벼락 위에 있는 곳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랬을까. 남들보다 뛰어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학사를 두 번, 석사를 두 번 하게 된 것은 그나마 그 중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공부였기 때문이다. 남들이 보기엔 몸도 불편한데 그렇게까지 공부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에게서는 그만큼 절박하다는 반증이었다. 그렇게 학위는 늘어났지만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언제쯤이야 독립적인 인격체로 설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 막연한 불안감으로 시간을 보냈다.

첫 번째 석사가 끝났을 무렵, 작은 잡지사예 재택근무를 조건으로 취직을 했다. 인터뷰를 하거나 현장에 취재하러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취재 전 인터넷으로 사전조사를 하거나 투고 받은 글을 교정 교열하는 업무를 맡았다. 성과도 좋았고 일도 재미있었지만, 회사는 이동의 어려움을 문제 삼아 수습기간이 끝났음에도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퇴사하게 되었다. 그냥 멍하니 있을 수는 없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분당 200원 받는 자막작성 알바를 하기도 했고, 장당 만원 받는 영한번역 알바도 해보았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 이왕 번역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해서 통번역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통역 업무의 특성상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역에는 마음을 두지 않고 번역에만 집중했다. 방학마다 동기들이 통역실습을 나가는 동안 나는 책을 한 권씩 번역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함께 기계번역이 대세가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따라 100만원쯤 하는 CAT 프로그램 (Computer-assisted

Translation)도 구매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었으면 해서 주말마다 온라인으로 법학 강의를 들었다. 사이버대학으로 학사편입을 하여 2, 3학년 전공과목을 중점으로 들었고 장애인 장학금 덕분에 학비도 절반밖에 들지 않았다. 사실 통번역대학원 같은 전문대학원의 경우 강의를 일주일 내내 들어야 하거나, 개인이 학습해야 할 분량이 꽤 많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함께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절박함 때문이었는지 어떻게든 마무리는 지을 수 있었다.

막상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자 마음이 심란했다. “집 밖으로 나올 수는 있을까?” 스스로 되뇌었다. 대학원 동기들은 통번역사라는 전문인이 되어 사회에 발을 내딛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졸업식 며칠 후, 대학원 교수님께서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번역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문을 보내주셨다. 처음엔 그 월급에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했다. 나 혼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최소 어머니라도 같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 월급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장애인 제한 채용에 식품계열 전공자 우대까지 있는 통번역직은 처음 본다고 하시며 그곳은 너의 자리라고 하셨다. 큰 용기가 필요했다. 부모님께서 중간에 그만두어도 좋으니 경험삼아 한번 도전해보자고 하셨다.

사실 시험은 쉬웠다. 학부에서 생명과학과 식품과학을 복수 전공했기에 늘 보던 내용이었고 전임자가 나간 지 10개월이나 되었기에 전공자 출신인 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실은 나를 뽑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였다. 장애인 제한 채용이었지만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기에 채용이 망설여졌고 담당 주무관이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나서야 뽑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식약처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회사는 내가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곳저곳을 고쳐주었다. 새로 배우는 업무들, 처음 겪는 조직생활, 실수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루하루가 참 감사했다. 다만 통번역 업무에는 번역 뿐 아니라 통역도 있어서 해외출장을 가야할 일이 있었는데 가지를 못하고 옆 사무실 다른 통번역사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이 있는 후 다음 직장은 번역만 하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산에 있는 법원도서관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번역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자리가 올라왔다. 대법원 판결문이라는 단어가 주는 위압감이 어마어마했지만 그래도 한번은 도전해보고 싶었다. 퇴근 후 잠자리에 들 때까지 3~4시간씩 국문과 영문 판결문을 비교하면서 읽었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놀랍게도 필기에 합격했다. 하지만 최종 면접에서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합격하였다. 몇 달을 정말 정신없이 준비했었기에 상실감이 꽤 컸다.

오전에 불합격 소식을 듣고 오후에 번역 업무를 하다가 인용해야 할 법령이 있어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였다. 무슨 조화였는지 무심코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눌렀는데 정규직 신입직원 채용공고에 법령번역직이 있었다. 그리고 원서 마감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었다.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번 한번만 더 도전해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다. 오전에 불합격 전화를 하더니 오후에 재도전 전화를 하는 걸 보면서 부모님께서서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나 빨리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는지 참 신기했다고 하셨다.

법원도서관과 달리 한국법제연구원은 공공기관이라 번역 외에도 NCS 시험을 본다 고 하였다. 다행히 번역시험은 판결문을 번역하면서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기시험 전까지 며칠 동안

책 한 권을 다 볼 수 있었다. 실제 시험에서도 번역은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NCS 시험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하고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던 차에 최종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관련 경력이 부족하다고 했던 법원도서관과 달리 법제연구원은 블라인드 채용 시스템 때문인지 내가 가진 역량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4개의 학위, 이학사·목회학석사·통번역학석사·법학사 모두를 높게 쳐주었다. 실제로 번역하는데 있어 다양한 배경지식은 무엇보다도 큰 강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3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이 되었다. 장애인 제한 채용이 아닌 일반인 35명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하여 채용이 된 것이다. 오히려 같은 능력이었다면 내가 아닌 건강한 다른 사람을 뽑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욱 기뻐고 그간의 수고를 위로 받는 느낌이었다. 입사 후 우리 번역센터는 트라도스라는 CA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더 효율적인 번역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감사하게도 대학원에 다닐 때 해당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기에 신입이지만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제일 잘 다루는 사람이 되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았다. 누가 길을 알려주지도 않았다. 늘 개척자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지금 이곳에 있게 되었다. 내가 말버릇처럼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손발이 나쁘다면 머리가 고생을 하면 된다.”